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제 4 교시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이 윤리 이론의 탐구보다 실제 삶에서 만나는 도덕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윤리학이 사실 명제로부터 당위 명제가 연역 가능한지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 고 생각한다.

- ① 선과 악이 무엇인지 탐구해야함을 강조한다
- ② 도덕현상은 객관적으로 기술해야함을 간과한다
- ③ 도덕적 추론에 대한 논리적 분석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 ④ 도덕적 담론에서 논리적 추론의 타당성 검증에 강조한다
- ⑤ 도덕 현상을 가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탐구해야함을 간과한다

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 예(禮)는 사치스러운 것 보다는 검소한 것이 낮고 상례(喪制)는 형식을 갖추는 것보다는 슬퍼하는 것이 낫다.
 을 :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모두 무명(因緣)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명과 탐욕에서 벗어난 사람은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① 갑 : 통치자는 먼저 수양을 통해 덕을 쌓아야한다.
- ② 갑 : 추기급인(推己及人)을 통해 인을 실천할 수 있다.
- ③ 을 : 자아를 구성하는 오온은 변해가는 실체임을 깨달아야 한다.
- ④ 을 : 병들, 늙음, 죽거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고통이다.
- ⑤ 을 :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물의 실상을 통찰하며 무명과 탐욕에서 벗어나야 한다.

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격에서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인격에서도 인간성을 단지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해야 한다.
 을 :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지 판단할 때 기준은 오직 쾌락의 양이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척도는 결과의 유용성이다.

- ① 갑 : 어떤 행위가 의무의식으로부터 나왔다면 도덕적이다.
- ② 갑 : 자연적 감정에서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가치가 없다.
- ③ 을 : 행위의 동기는 쾌락의 추구와 고통의 감내에 있다.
- ④ 을 :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고 양적으로 측정가능하다.
- ⑤ 갑과 을 : 도덕 원리를 판단할 때 인간은 모두 평등함을 전제로 삼는다.

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최고선인 행복은 덕을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며, 덕은 영혼의 요소에 따라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으로 나뉜다. 감정이나 행위에 있어서 덕은 지나침에 따른 악덕과 모자름에 따른 악덕 사이의 중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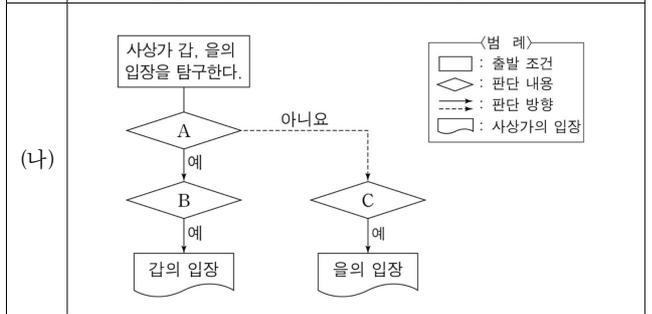
<보기>

- ㄱ. 모든 덕은 선천적이며 습관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
- ㄴ. 국가는 최고의 선을 목표로 하는 최상의 도덕 공동체이다.
- ㄷ. 어떤 하나의 행위에서 중용의 덕과 악덕은 모두 하나이다.
- ㄹ. 어떤 행위 뿐만 아니라 감정에도 중용의 상태가 있을 수 있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 시민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에 항거함으로써 정의로부터 이탈을 방지하며,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 없고 민주 사회의 공적 정의관에 의거해야 한다.
 을 :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은 결과주의적 접근법에 따라 판단해야한다. 이 행위에 따르는 비용과 편익은 물론 성공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보기>

- ㄱ. A: 시민불복종은 정의롭지만 불법적인 행위인가?
- ㄴ. B: 공적 정의관이 지배하지 않는 사회에서도 시민불복종이 성립할 수 있는가?
- ㄷ. B: 헌법을 규제하는 원칙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 ㄹ. C: 시민불복종은 인권 보장 이외의 목적일 때도 성립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ㄷ, ㄹ ⑤ ㄴ, ㄷ, ㄹ

2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국가의 권력은 사회 구성원들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는 분쟁 해결을 위한 공정한 재판관이자 집행관이며, 국민의 재산권을 동의없이 침해한 정부는 교체 가능하다.

<보기>

- ㄱ. 자연 상태에서 각 개인은 집행권을 지니지 않는다.
 ㄴ. 국민의 자유와 주권자의 절대권력은 양립 가능하다.
 ㄷ. 개인의 권리를 양도받은 국가는 국민에게 공포된 법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강조하는 공직자의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세금을 엄격히 받는 것이 아닌 재산의 상황이나 생산물의 양에 따라 조절해주어야 하는 것이 목민관의 일이다. 고통을 겪고 있는 백성들의 피해가 심한 것을 바로 잡고 민의(民意)를 존중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민의에 반하는 통치자는 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 ① 목민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절용(節用)이다.
 ② 통치자를 백성이 추대해서 올릴 수 있어야 한다.
 ③ 수령은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④ 공직자가 청렴하지 못한 것은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⑤ 절약의 대상은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적인 영역에만 국한된다.

8. 현대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분배의 정의로움은 그 분배가 어떻게 이뤄졌는가에 달려 있다. 사람들의 과거 행위나 상황은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권리를 창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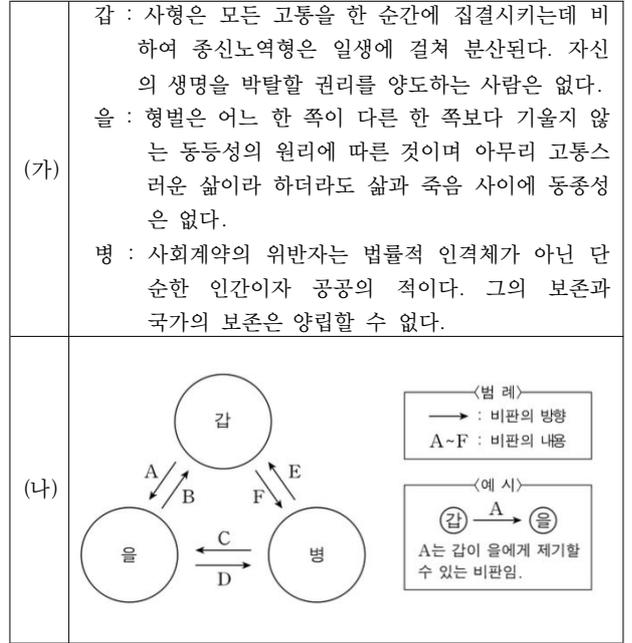
을 : 각자는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광범위한 체계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보기>

- ㄱ. 갑 : 사회적 유용도에 따른 분배원리는 비역사적이다.
 ㄴ. 을 : 정의의 두 원칙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원칙이어야 한다.
 ㄷ. 을 : 분배의 몫을 결정할 때 사회적 우연성과 자연적 운수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한다.
 ㄹ. 갑, 을 : 다수의 복지를 소수의 기본적 자유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 :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효과가 없는 형벌임을 간과한다.
 ② B : 형벌은 범죄 사실 자체를 근거로 정언 명령에 따라 부과해야 함을 간과한다.
 ③ C와 E :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그의 인격성을 존중하는 것임을 간과한다.
 ④ D : 형벌은 사회적 선을 증진시키기 위함이 아닌 것을 간과한다.
 ⑤ F :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의 형벌을 부과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10.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예술 작품은 좋은 곳에서 불어오는 미풍처럼 인간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어릴 때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을 담고 사랑하고 공감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추한 것과 나쁜 리듬, 부조화는 나쁜 성품을 담았지만 그 반대되는 것들은 좋은 성품을 담았으며 또한 그것을 모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술가들은 작품 속에 무절제와 야비함을 표현해서는 안 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예술가는 추방해야 합니다. 예술은 아름답고 우아한 것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 ① 예술은 진리를 왜곡할 경우 비판받아야 한다.
 ② 미를 추구하는 행위는 도덕성 촉진과 관련이 없다.
 ③ 예술에는 예술 이외의 다른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④ 도덕적 가치를 예술에서 미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⑤ 예술은 도덕으로부터 독립된 자율성을 지닌다.

11. 다음은 신문 칼럼과 그 글을 읽은 학생의 탐구 보고서이다. 탐구 보고서에서 옳지 않은 것은?

오늘날 대중문화는 변화 없는 반복적인 오락물을 생산하는 장사가 되었고 문화의 소비자는 문화 산업의 객체가 되었다. 문화 상품의 속성은 자발성과 상상력을 제거해 버림으로써 적극적인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문화 산업은 마치 규격품을 만들듯이 인간을 재생산하려고 그 생산물은 여가생활에서조차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노린다. 개인의 문화 생산물은 모든 사람을 일하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휴식 시간에도 잡아 놓는 거대한 경제 체계의 일부이다.

담요신문 0000년 00월 00일

위의 칼럼을 읽고 해당 칼럼을 작성한 사람의 글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하였다. 그에 따르면 ㉠대중 예술은 현실적 모순을 은폐하고 또한 ㉡대중 의식을 조작한다고 했다. 이러한 문화 산업은 ㉢시민의 비판적 사유를 제한하고 주체성을 약화시킨다. 또한 ㉣대중 예술품의 주된 가치는 교환 가치에 의해 결정되며 ㉤문화산업은 소비자가 지닌 욕구를 존중하여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로

12. (가), (나)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 무릇 음악은 즐거움이며, 도로써 욕망을 제어하면 곧 즐겁게 어지럽지 않게 된다. 욕망으로 도를 잊으면 곧 미혹되어 즐겁지 않게 된다.
(나) : 악(樂)은 비록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귀로 듣기에 즐거우나, 백성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악기를 만들고 연주하는 것은 백성의 처지를 악화시킨다.

- ① (가) : 예악은 정서의 순화와 언행의 교화에 기여한다.
② (가) : 음악은 개인의 도덕적 성품을 함양하기 위해 필요하다.
③ (나) : 음악은 백성들의 안정된 삶에 해로움을 줄 수 있다.
④ (나) : 예는 재물의 낭비를 가져오고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다.
⑤ (가)와 (나) : 시와 악의 형식뿐만이 아닌 내용에 담겨 있는 도덕적 가치도 중요하다.

1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자유 경제 체제에서 경영자들은 오직 기업의 소유주들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그 책임은 일반적으로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원을 활용하고 이를 위한 활동에 매진하는 것이다.

<문제 상황>

A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자인데, 최근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공헌하라는 여론을 보았다. A는 기업의 이익을 기부할 것인지 고민 중이다.

- ① 기업은 사회 공공선 실현에 매진하지 않아도 됨을 생각하라.
② 기업은 어떤 수단을 이용하든 이윤이 최고 목표임을 생각하라.
③ 기업의 이윤 추구하고 공익 실현은 양립할 수 없음을 생각하라.
④ 기업은 사회적 단체이므로 기부 행위는 필수임을 생각하라.
⑤ 기업은 사회 복지 공헌에 책임을 다해야 함을 생각하라.

1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 원조 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우리 자신에게 도덕적으로 중요한 어떤 것을 희생하지 않고서도 아주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을 중지할 수 있는 한, 그러한 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

을 : 질서 정연한 사회들의 장기 목표는 무법적 국가와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사회들을 질서 정연한 만민들의 사회로 가입시키는 것이다. 질서 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기>

- ㄱ. 갑 : 원조를 통해 일어날 이익과 해악을 고려해야 한다.
ㄴ. 을 : 원조는 경제적 분배의 과정으로 평등을 추구한다.
ㄷ. 을 : 원조 시행 시 인권에 대한 강조는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
ㄹ. 갑, 을 : 원조는 의무가 아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르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 자연 체계 내에서의 인간은 다른 동물과 같이 대지의 산물로서 평범한 가치를 지니지만 도덕적, 실천적 이성의 주체로서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 을 : 자연 존중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야생 생명체를 본래적 가치를 지니고 고유의 선을 가진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 본다. 병 : 인간은 대지를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자연을 남용한다. 유기체가 아닌 존재라 하더라도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다.</p>
(나)	<p><범례> 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병만의 입장 D: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p>

<보기>

- ㄱ. A: 도덕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존재는 도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ㄴ. B: 인간의 기본이익을 위해 유기체의 기본이익을 해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ㄷ. C: 어떤 존재가 생명을 지닌 존재가 아니어도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ㄹ. D: 이성의 유무는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르 ⑤ 다, 르

4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16.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유전자 조작은 인간을 위한 불치병 치료나 더 우월한 유전자 선별 등을 위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조작은 인간을 도구화하고 자율적 삶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합니다.

을 : 동의합니다. 하지만 모든 우생학이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겪을 고통을 줄임은 물론 좋은 유전자로 더 발전된 문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갑 : 우생학이 인간의 고통을 줄일 순 있지만 발전을 유도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태어난 인격체는 다른 자율적 인격체와 달리 원초적으로 동등하지 못한 채로 공론장에 참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을 : 아닙니다. 유전학적 강화를 통해 태어난 사람이라도 온전한 자율성을 지니고 다른 인격체와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유전적 개입의 범위에 관한 보편적 합의는 필요합니다.

- ① 유전자 조작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가?
- ② 유전적 개입으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는가?
- ③ 우생학의 안정성이 먼저 검증된 다음에 실행되어야 하는가?
- ④ 유전자 조작을 통해 태어난 인간도 다른 인간과 동일한가?
- ⑤ 인간이 우생학을 통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1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계는 성스러운 것, 존재의 다양한 형태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무엇보다도 세계는 실존하고, 실제로 거기에 있고, 그리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세계는 신들의 작품인 피조물로 자신을 드러낸다. 이 신의 작품은 스스로 성스러운 것의 여러 양상을 제시한다. 우주는 전체로서 실제적이고 살아있고, 신의 창조물이며 또한 성스러움을 지닌 유기체이다.

- ① 종교적 인간만이 무의식 중에도 종교적으로 행동한다.
- ② 세속적 휴머니즘과 초월적 세계가 공존해야 한다.
- ③ 종교적 인간은 세속적 대상에서도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다.
- ④ 사물은 성스러움이 현현함으로써 전혀 다른 것이 된다.
- ⑤ 비종교적 인간은 일상의 의례가 갖는 종교적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1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거주는 인간이 위협적인 외부세계로부터 보호받고 도피할 수 있는 공간인 집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세계에는 자신이 해야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극적 긴장과 관련된 양 측면은 모두 필수적이므로 거주 공간은 외부 세계에 대해 열릴 수 있는 닫힘의 공간이어야 한다.

- ① 거주는 인간이 태어날 때 부터 주어지는 공간이다.
- ② 집은 위협적인 외부 세계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다.
- ③ 인간은 집에 거주함으로써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
- ④ 집은 인간과 관계를 맺으며 외부 세계와 단절을 유도한다.
- ⑤ 집은 고정된 공간에서 불안을 심화하면서 성숙해지는 공간이다.

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 국제 정치는 본질적으로 다양한 권력 간의 대립되는 이해와 갈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도덕적 원리는 절대로 완벽하게 실현될 수 없다.

을 : 이성은 도덕적으로 법칙을 수립하는 최고 권력의 왕좌를 차지한다. 이성이 전쟁을 탄핵하고 평화 상태를 직접적인 의무로 규정하더라도 평화연맹이 존재해야 한다.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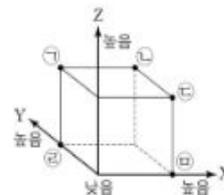
- ㄱ. 갑 : 국제 사회는 세계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이다.
- ㄴ. 갑 : 전쟁만이 파괴된 세력 균형을 복원할 수 있다.
- ㄷ. 을 : 이성은 가장 높은 입법적이고 도덕적인 힘이다.
- ㄹ. 을 : 자연적 감정을 동기로 영구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20.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성적 관계는 출산과 양육에 대해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부부간의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 부부만이 성적 관계에서 상호 인격 존중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

(나) 도덕적 판단에서 성행위와 여타 행위는 다른 점이 없다. 자율성, 해악금지 원칙 이외에 성행위의 도덕적 정당화를 위해 필요한 추가적 원칙은 없다.



- X: 성적 관계에서 쾌락적 가치보다 성실적 가치를 강조하는 정도
- Y: 사랑과 무관한 성적 관계가 정당함을 강조하는 정도
- Z: 혼전(婚前) 성적 관계의 도덕적 허용을 강조하는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시오.